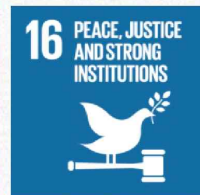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청소년NGO '푸른나무재단'

2024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뉴욕 UN본부 제62차 본회의 참여자 모집

UN Youth Delegation of the Blue Tree Foundation



CONTENTS

I. 인사말	2
II. 모집요강	3
1. 모집대상 및 인원	4
2. 활동혜택	5
3. 모집일정	6
4. 제출서류 및 방법	6
5.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등록 안내	7
6. 안전관리	7
7. 기타사항	8
III. 일정 및 프로그램	9
1. 대표단 전체 일정	10
2. 대표단 현지 일정	11
IV. 지난 대표단 활동 및 소감	12
1. 2023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 사진	13
2. 2023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 후기	16
3. 2022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 후기	21
4.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 결과물	22
V. UN 본회의 및 기관소개	25
1. 2024년도 제62차 본회의 안내	26
2. 기관소개	27
VI. 제출서류 양식	28
1. 지원서	29
2. 자기소개서	30
3. 서약서	32
4. 개인정보, 초상권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3

인사말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대한민국 최초로 학교폭력을 사회문제로 공론화한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청소년 NGO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이라는 단어조차 용인되지 않았던 시절부터 오직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녹록치 않은 사회 여건 속에서 우리 사회가 바르게 가야 할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생의 9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할 정도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이에 푸른나무재단은 초연결, 초국경적인 청소년 사이버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UN경제사회이사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UN경제사회이사회 본회의에 서면성명문과 구두성명문이 채택되었고, 청소년 대표단과 함께 국제회담을 열어 세계시민들에게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도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비폭력 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대표단은 뉴욕 UN본부 본회의에서 푸른나무재단이 국제기구와 함께 직접 주최하는 사이드이벤트에 기획·참여하고, 본회의 연설 및 성명문 제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각계 주요 인사와 국제기관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 활동을 국내외 언론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청소년 여러분이 직접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現)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現) 삼성호암상위원회
現) 서울평화상심사위원
現) 용운장학재단 이사
現) 지속가능 미래 사회협력 네트워크 대표
前) 고려대학교 교육부총장
前) 한국사회학회 회장
前) 미국 유타주립대 사회학과 겸임교수
前) 정보문화포럼 의장
前) 세계한류학회 이사장·회장
前) Global Policy 편집위원
前) 재단법인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원장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박길성**

모집요강

1

모집대상 및 인원

모집명	모집인원	모집연령
2024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6명 내외	만 16 ~ 24세 (2024.1.1. 기준)

- 최종 모집인원은 적격자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회재난 발생 및 항공편에 따라 해외일정 일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본회의 참여를 위한 사전·사후활동을 비롯한 모든 일정 참여 필수

필수사항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자
- 사전/사후활동 등 대표단 운영 기간 동안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 가능한 자
-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국제회의에 관심이 많은 자
- 사회 및 조직과 타인에 대해 배려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춘 자
- 푸른나무재단의 활동에 동의하고 가치에 부합하는 자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폭력에 연루된 사실이 없으며 심신이 건강한 자

우대사항

- 영어 외 UN 공식 언어(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로 토의 및 발표를 할 수 있는 자
-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등 SNS를 통해 비폭력 문화확산이 가능한 자
- 국제회의 및 해외 교류활동 참가 경험이 있는 자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관한 경험 및 예방활동 경험이 있는 자
- 학교 밖 청소년 및 사회배려대상자(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활동혜택

구 분	내 용
UN 출입증 (Grounds P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나무재단 대표자로서 미국뉴욕 UN본부 출입증 발급 제공 ○ 출입수속 및 자격심사를 통해 소수에게 발급되는 특별출입증 ○ 본 회의 기간 내 모든 회의장 출입 가능
본회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본회의 참석(개막식, 장관급/고위급회담, 시민사회포럼 등) ○ UN 본회의 기간 내 사이드이벤트 개최/운영 (또는 UN본부 로비 대관 캠페인 개최/운영)
수료증 및 표창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명의 활동 수료증 발급 ○ 활동 우수자 대상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명의 표창장 수여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대사 등 고위급 연사, 국제기구 및 학계 대표 인사들과 네트워킹 ○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또는 총영사관 방문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분야 전문가 기본역량교육 ○ 현지 대학 탐방 및 대학생 미팅(뉴욕 또는 컬럼비아 대학교) ○ 현지 기업 탐방 및 글로벌 임직원 미팅(K-디아스포라 연계)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의 기간 내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 제공(VMS, 1365) ○ 봉사활동 시간은 본회의 기간 내 활동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약 2~30시간 이내 제공됨



3

모집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① 지원서 접수	2023.10.18.(수) ~ 11.19.(일)	
② 서류합격자 발표	2023.11.24.(금)	* 푸른나무재단/푸른코끼리 홈페이지 공지
③ 대면면접	2023.12.03.(일) 09:00~18:00	* 푸른나무재단 본부에서 대면면접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88) * 소정의 교통비 지급 예정 * 요청 시 공문 발송 가능
④ 합격자 발표	2023.12.06.(수)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누적 평가
⑤ 합격자 등록기한	~ 2023.12.11.(월) 18:00까지	* <u>등록기간 내 참가비 미납, 여권 미제출 시 자동 합격 취소 (p. 7 참고)</u> * 공고문에 안내된 계좌로 송금 필수
⑥ 추가합격자 발표	2023.12.12.(화)	* 합격자 취소 발생 시 추가 합격자 선발 예정(개별통보)
⑦ 추가합격자 등록기한	~ 2023.12.13.(수) 18:00까지	

- 상기 일정은 UN측 공지사항, 코로나19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서 등 증빙서류의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참가비 납부 및 추가 증빙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합격자 발표 시 안내

4

제출서류 및 방법

구 분	일 정
제출서류	① 지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서약서 ④ 개인정보·초상권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출방법	○ 푸른나무재단(www.btf.or.kr) 또는 푸른코끼리(www.bepuco.or.kr) 접속 ○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및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제출 후 평일 기준 2일 이내 확인 메일 발송됨
제 출 처	○ 푸른나무재단 사이버SOS센터 이메일(cybersoscenter@btf.or.kr) - 메일제목 : 2024년도 UN청소년 대표단_(홍길동) - 파 일 명 : 2024년도 UN청소년 대표단_(홍길동)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순번대로 취합한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메일제목 및 파일명 미준수 시 접수/심사에서 제외됨

5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등록 안내

구분	내용	
참가비	참가자 자부담	총 8,000,000원
	전체 활동 포함 (사전, 현지, 사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활동 : 발대식/해단식 운영비, 교육비 등 ○ 현지 활동 : 왕복항공(국적기) 및 10박 12일 체재비 비자(ESTA), 숙박(4성급), 통신(미국 티모바일), 식사/다과, 보험(2억원), 교통, 멘토링, 문화탐방 등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방법 : 계좌입금 ○ 입 금 처 : SC제일은행 / 245-20-039275 / 푸른나무재단 ○ 유의사항 : 등록 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을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입금 	
환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환불 : 입금 당일 ○ 80% 환불 : 추가합격자 발표 이전 (2023.12.11.) ○ 50% 환불 : 추가합격자 발표 이후 (2023.12.12.) ○ 환불 불가 : UN 청소년 대표단 일정이 시작되는 오리엔테이션 이후 ○ 기타사항 : 환불규정은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모두 동일 적용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년 12월 17일(일) 10:00-18:00 ○ 장소 : 푸른나무재단 본부(서초구 서초대로46길 88, 청예단빌딩) ○ 내용 : 전체일정 안내, 기본교육, 발대식 등 	

6

안전관리




구분	내용
전문인력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나무재단 연구원 전 일정 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현장체험학습안전지도사 국가자격증 보유 - 다년간 미국뉴욕 UN본부 본회의 참여 및 연설 경험 ○ UN 본부 출입 및 안전한 활동을 위한 관리 및 인솔
여행자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자보험 의무가입 ○ 롯데손해보험 표준플랫 한도 2억원, 상해 2,000만원 가입
비상연락망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티모바일(현지 대표통신사) 유심 제공 ○ 10박 12일 데이터무제한 및 현지통화 가능
교육 및 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수칙 가이드 및 코로나19 감염병 방역관리 교육 ○ 뉴욕 영사관, 한국 대표부, 병원 등 위치 및 연락처 안내 ○ 비상약 구비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표단 활동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공고문의 일정을 숙지 후 지원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습니다. ○ 합격 후 제출서류와 면접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 임의로 항공권 개별 업그레이드, 숙박 장소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여권은 합격자 등록기한에 제출해야 하므로 여권만료일 6개월 미만인 지원자는 재발급을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 현지 활동 중 보호자(부모, 친인척, 지인 등)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사전, 현지, 사후 활동을 모두 성실하게 참여한 자에게만 수여됩니다.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 당 자 : 푸른나무재단 사이버SOS센터 명희나 연구원 ○ 문의방법 : 전화(070-5202-4031), 메일(cybersoscenter@btf.or.kr) <p>※ UN 청소년 대표단을 함께할 후원사도 찾고 있습니다.</p>			
푸른 나무 재단	홈페이지	http://www.btf.or.kr	유튜브	www.youtube.com/푸른나무재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kbht	트위터	https://twitter.com/btf_bluetre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tf.bluetree/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xexFxeV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tf_bluetree/			
	23' 기자회견	https://zrr.kr/GUUj "갈수록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안전지대는 없다!"			
	22' 기자회견	https://zrr.kr/5d2b "사이버폭력 역대 최고치, 끊임없이 진화하는 학교폭력!"			
	21' 기자회견	https://zrr.kr/gB0x "학교폭력, 코로나 시대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푸른 코끼리	홈페이지	https://www.bepuco.or.kr	유튜브	www.youtube.com/푸른코끼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epuco	트위터	https://twitter.com/bepuco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e_puco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sksexb	
	22' 푸코포럼	https://zrr.kr/kiLK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폭력, 그리고 소멸'			
	21' 푸코포럼	https://zrr.kr/7iQ7 '사이버폭력 백신, 푸른코끼리'			
	20' 푸코포럼	https://zrr.kr/t0GA '푸른코끼리, 사이버정글 속 온(溫)택트를 제안하다'			

일정 및 프로그램

1

대표단 전체 일정

구분	내용
<p>[사전준비] 연구 및 교육 (Research & Train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기간 : 2023.12.14. ~ 2024.02.03. ○ 활동장소 : 푸른나무재단 본부(서초동) ○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 - <u>12/17(일) 예정</u> · 역량강화 교육 및 그룹 스터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사항 - 24' UN 본회의 주제에 관한 사항 - 사이드이벤트 개최 및 캠페인 준비 (사회자, 학생연사, 해외연사 섭외 등)
<p>[현지일정] 연설 및 활동 (Speech & Movem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기간 : 2024.02.04. ~ 02.15. / 10박 12일 ○ 활동장소 : 미국뉴욕 일대 ○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 UN본부 본회의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시민사회포럼 참가 및 발언 - 사이드이벤트 개최, 운영, 발표 등 - UN본부 로비 대관 후 캠페인 운영 - 각국 대사 및 정부 관계자 네트워킹 · 한국 공공기관 방문(영사관 등) · 명문대 탐방 및 재학생 멘토링(뉴욕대 등) · 기업 탐방 및 직원 멘토링 · 문화탐방(월스트리트, 엠파이어스테이트 등)
<p>[사후활동] 확산 및 성과공유 (Spreading & Comple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기간 : 2024.02.16. ~ 03.03. ○ 활동장소 : 푸른나무재단 본부(서초동) ○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성과 기록 · 언론보도 및 인터뷰 준비 · 해단식 - <u>2024.02.24.(토) 예정</u> (가족 및 지인 초대, 언론 초대)

○ 모든 활동에 대한 참가 확인증 발급가능

2

대표단 현지 일정

- 대표단 현지(뉴욕) 일정은 UN 공지 일정과 내용에 따라 변경됩니다.
- UN 본회의 세부 일정과 부대행사 공지는 회의가 임박했을 때 공지됩니다.
- UN 본부 이외 기관은 방문처의 승인 여부와 최종합격자들이 희망하는 방문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올해 방문 협의 중인 곳을 안내를 드립니다.

2024년도 탐방 기관(안)	
기관/단체명	소개
유네스코 (UNESCO)	세계 교육현황 보고서를 발간은 물론, 세계시민을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및 인공지능 교육 등에 대한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유엔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유엔 전문기구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유엔총회나 소회의가 열리는 경우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입장을 밝히는 일을 하는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공관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전문가의 외교 및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과, 미국과 한국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기회
구글 뉴욕 (Google NYC)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증진 등 건강한 온라인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초대규모 다국적기업
골드만 삭스 본부 (Goldman Sachs Headquarters)	3만 명이 넘는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은행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의 집합소
월 스트리트 투어 (Wall Street Tour)	뉴욕 증권 거래소 및 골드만 삭스와 같은 최고의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월스트리트 내부자가 이끄는 투어
스포티파이 (Spotify)	국외 청소년들이 음악감상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이자, 청소년의 온라인 사용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2016년 7월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출범한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온라인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 강화, 역량 구축 및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
뉴욕교협 산하 뉴욕한인청소년센터 (Korean Youth Center)	뉴욕 주 정부 인가 청소년전문 기관으로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이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매주 학교로 방문하고 있어 한인 청소년들이 겪는 문화와 언어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며,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관련 사안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2023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최종 활동 내용은 푸른나무재단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일정	내용	일정	내용
DAY 1. 출국	https://zrr.kr/gO6Z	DAY 6. 시민사회포럼	https://zrr.kr/UsDz
DAY 2. UN 출입 신청	https://zrr.kr/gtP8	DAY 7. 문화탐방	https://zrr.kr/Pnx9
DAY 3. 본회의 개회식	https://zrr.kr/N7dN	DAY 8. 문화탐방	https://zrr.kr/tluV
DAY 4. 네트워킹	https://zrr.kr/PvgU	DAY 9. 사이드이벤트 개최	https://zrr.kr/eGYW
DAY 5. 기업 멘토와 만남	https://zrr.kr/EBMP	DAY 10. 대학 멘토와 만남	https://zrr.kr/f3r2

지난 대표단 활동 및 소감

1

2023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 사진

[1일차] 출국 및 뉴욕도착



출국장



UN 출입증 발급 및 UN 본회의장 방문

[2일차]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방문 및 타 국가 사이드이벤트 참여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방문 및 대사님 미팅



주유엔 포르투갈 대표부 주최 사이드이벤트 참여

[3일차] 타 국가 주유엔 대표부 사이드이벤트 참여 및 전략회의



주유엔 핀란드 대표부 사이드이벤트 참여



글로벌 네트워킹 및 전략회의

[4일차] 미국 NGO 사이드이벤트 참여 및 한국 외교관 미팅



Bahá'í International Community 주최 사이드이벤트 참여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서기관과 식사

[5일차] UN 본회의 참석 및 현지 기업인 멘토와의 만남



UN 본회의 고위급회담 참석



JP 모건 애널리스트 및 뉴욕대학교 재학생과의 식사

[6일차] 시민사회포럼 참석 및 사이드이벤트 리허설



UN 본회의의 시민사회포럼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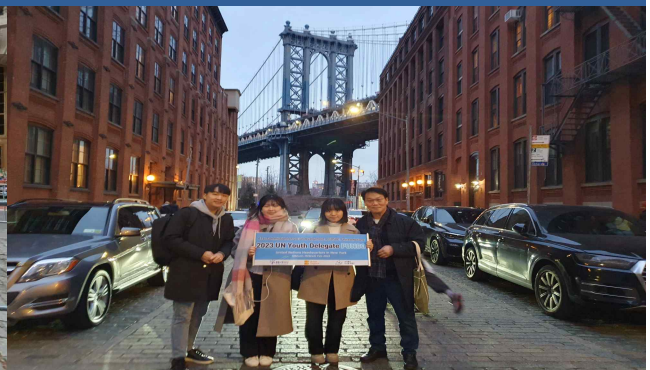
푸른나무재단 주최 사이드이벤트 리허설

[7일차] 뉴욕 문화탐방



뉴욕 문화탐방 (뉴욕현대미술관, 뉴욕공립도서관, 브라이언트공원 등)

[8일차] 뉴욕 문화탐방



뉴욕 문화탐방 (9/11 기념관, 월스트리트 돌진하는 황소 동상, 브루클린 대교 등)

[9일차] 푸른나무재단 사이드이벤트 개최 및 구두성명문 발표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와 사이드이벤트 공동주최



UN 본회의 내 구두성명문 연설

[10일차] 국제적 비영리단체 미팅 및 뉴욕대학교 캠퍼스 투어



IFFD(국제가족개발연맹)과의 미팅 진행



뉴욕대학교 대학원생과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

[11일차] 뉴욕 출국 및 한국 귀국



해단식 일정 안내 및 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을 통해 다져진 ‘하나의 인류’라는 믿음을 배우다”

박경훈 / 제주한국국제학교 1



<패널토론 발언하는 박경훈>

지난 2월 5일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순간의 설렘과 두근거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지난 1년간 푸른나무재단 청소년 사이버폭력 방지 동아리 '지킴이'로 했던 많은 활동은 나를 한층 성숙하게 했지만, 올 겨울 푸른나무재단의 '2023 UN 청소년 대표단'에 선발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UN 청소년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대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인 푸른나무재단에 의해 청소년 사이버폭력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NGO와 협력해 비폭력 문화 확산 활동을 위해 조직되었다. 나는 이 대표단의 일원으로 선발 되었고, 제61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사이드이벤트에서 국내외 실태를 공유하고 예방과 대응방법을 발표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2달 넘게 준비를 해왔다. UN 본사에 간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지만 벅찬만큼의 부담감도 커져왔다. 뉴욕 JFK 공항에 내려서 숙소로 도착해 보니, 진짜 내가 뉴욕에 왔다는 실감이 났다. 이 전에도 미국에 온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세계의 중심도시인 뉴욕에 왔다는 떨림이 지속되었다. 그러면서도 대표단으로서의 책임감과 무게감이 동시에 다가왔다. 특히 UN 본사에 발을 딛는 순간에는 나름의 사명감도 느껴졌다.

우리는 푸른나무재단 연구원님들의 지도하에 UN의 일정을 소화했다. UN경제사회이사회는 정부 기관이 다루지 않는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임무를 맡는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이행'을 가속화하는 불평등 극복 방법으로서의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하에 이지상 연구원님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디지털 기반 환경에서의 숙련도를 요구하거나, 디지털 기술로 대체되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청소년의 사이에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존에 사회문제로 존재하던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전되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화두를 던지며 모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디지털 세상을 열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참을 촉구하셨다. 여러 번 읽어왔고 준비해왔던 내용이었지만, 현장에서 들으니 그 울림은 더욱 크게 느껴졌다.

우리는 준비했던 대로 디지털 웰빙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창의적인 교육방식과 더불어 청소년의 나이 및 학년별 연령별 인지능력과 디지털 사용 빈도 및 심도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방식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 인류가 마스크 착용과 백신 개발을 통해 팬데믹으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켜온 것처럼,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민교육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를 지키는 마스크를 쓰고, 사전에 모두의 디지털 웰빙에 기여할 수 있는 백신을 맞아야한다."고 발표를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UN 사이드이벤트를 직접 개최하며 국제사회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었기에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마지막으로 폐회사 때 김상진 차석대사님이 대한민국 정부가 "소외된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제도를 출범시키기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으며, 미래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로 육성하기 위한 구조화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이드이벤트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오며, 이 순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최근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라는 OTT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되며, 학교폭력의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공간은 이제 전 인류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제 하나의 인류로 우리 청소년의 자각과 행동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패널토론 발언하는 박서아>

이번 제61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이행을 가속화하는 불평등 극복 방법으로서의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뉴욕 UN본부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됐다. 뉴욕본회의 참가를 목표로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유엔본부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입장을 한다는 것부터가 믿어지지 않았고 입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UN

회의장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견 하나 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함께 선발된 대표단 팀들과 함께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면서도 유엔본부에서 이 자료들이 쓰여질지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마음으로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푸른나무재단과 관계자 분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서포트 그리고 준비과정을 보면서 그런 걱정도 점차 사라졌다. 그리고 UN본부로부터 우리들의 개별메일을 통해 우리들은 정식으로 초대가 되었다. 이 멋진 초대야말로 푸른나무재단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가슴 벅찬 순간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UN본부의 정식 초대메일을 지니고 JFK입국심사를 통과하며 뉴욕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현실적인 고민거리는 61차 본회의의 주제를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였다. 2030년 아젠다인 실업문제나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는 아직 학생 신분의 우리들과는 거리가 먼 다른 이슈로만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민을 하면 할수록 2030년의 이슈는 알고 보면 그야말로 나와 내 또래 친구들이 학업과정을 마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사회로 진출하는 초기 단계의 주인공으로 2030년의 고민은 그 누구보다 우리들의 관심이슈이자 고민일 것이다.

나는 오히려 우리들을 위해 지금의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 또한 우리에게 닥칠 심각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너무 값진 시간이었다. 한순간 한순간 모든 것이 소중하고 값진 순간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과 대표단이었다. 혼자서 생각하고 이뤄내기 힘든 과제들을 한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었다.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뉴욕본회의를 앞두고 오사카에서 3박4일 농구경기를 참가하느라 자료준비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라 함께하는 대표단에게도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본회의 주제와 우리가 함께 고민하던 디지털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까지 어우러져 심각성 공유 그리고 예측, 방지와 실행방안을 논의 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함께하는 선생님과 뛰어난 역량의 대표단의 힘이 컸기 때문이다.

모든 리스크의 고민과 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듯이 남들이 아닌 바로 우리가 미래의 리스크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많은 대표단과 의견을 나누며 함께 고민하는 소중하고 값진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의 나를 돌아보았다. 평소의 나는 오늘까지 제출해야 숙제 혹은 내일 치르는 시험만 챙기느라 발등의 불만 보고 동동 구르며 고개 한번 들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러나 푸른나무재단 그리고 대표단 그리고 유엔기구의 다양한 스태프들과 이번 과정을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나는 고개를 들어 멀리 내다보려 하고 주변에 잘 안 보이는 곳까지 자세히 보려한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어떤 미래가 그려질지 상상해본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먼저 고민하고 예측하고 실천하여 행동하는 일. 너무 멋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 같다. 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준 귀한 경험과 가치 있는 순간을 선물해준 푸른나무재단과 함께한 대표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패널토론 발언하는 유빈>

푸른나무재단 UN 청소년 대표단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학교 선생님께 전달받고 나서 꼭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으로서 UN 본부에 가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흔하겠는가. 더군다나 나는 국제 인권변호사가 꿈이기에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특히나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사이드이벤트들에 참석하면서 특히 좋았던 것은 같은 주제를 다면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년층 등 다양한 집단들은 각기 다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사이드이벤트를 직접 개최하면서도 내가 연사가 아니었음에도 패널토론을 통해서 내 의견을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대표단 모두에게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마련해주신 푸른나무재단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대표단 일원 모두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심하신 게 보였다.

뉴욕에 있었던 열흘 동안 UN 사이드이벤트 이외에도 푸른나무재단에서 준비한 일정들이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다. 특히 NYU 학생분들과 만나는 자리는 기대를 딱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Washington square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다양한 학생들을 보고 언젠가 이들 사이에 섞여 다닐 날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국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NYU에 직접적으로 입학하게 될 일은 없겠지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다니고 싶다. 열심히 노력해서 꼭 내 목표 대학에 입학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공식적인 일정 이외의 시간에도 쉴틈없이 뉴욕 구석구석을 누볐다. 지루한 한국 입시생활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일탈이라는 생각에 시차로 인한 피곤함을 억누르고 하루 평균 2만보를 걸었다. Central Park, Metropolitan Museum, Museum of Natural History, Union Square 등등... 길가에서 눈이 마주치면 공사를 하다가도 가볍게 목례를 해주는 사람에게서 따듯함을 느꼈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앞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는 사람에게서 낭만을 느꼈으며, 가로등과 우편함마다 칠해진 그래피티에서 개성을 느꼈다. 열흘만으로는 부족했다. 성인이 된 후에 다시 와서 이때의 추억을 회상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다.

사실 UN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 수업시간에 배우기를, “UN과 같은 국제기구는 권고적 효과만 가질 뿐 실제 정책 결정에는 개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번에 사이드이벤트와 본회의에 참여하면서도 느꼈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은 사회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야기 했지만 추상적이었고, 중간중간 '이게 실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는 이어지지 않고 담론에서만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러한 나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시민사회, 정부는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시민들은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느끼고 호소하는 역할을,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담론을 통해 해결방안의 틀을 짜서 각 나라의 정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모로 열흘간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 국제무대에 서보기도 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며, 성인이 되기 전 한 번쯤은 뉴욕을 다녀오겠다는 버킷리스트도 이뤘다. 한층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생각도 든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경험만 쌓았기 때문에 푸른나무재단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을 후배들에게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사이드이벤트 사회자 이슬아>

벼룩을 뚜껑이 있는 병에 넣은 후 시간이 지나 그 뚜껑을 열면 그 벼룩은 다시 뚜껑 높이 이상으로 뛰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표단으로서 뉴욕에 가기 전 저의 모습은 마치 이 벼룩과도 같았습니다. 큰 꿈을 꾸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지만, 예전의 저는 제 환경을 탓하고 이와 타협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살았던 제게 UN 청소년 대표단으로서의 활동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열일곱이라는 어린 나이에 UN headquarter에서의 사이드이벤트 사회자로 국제무대에 선다는 것. 각국 수장들, 국제기구 임원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자리에서 내 능력과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감히 상상도 못했던 뚜껑 밖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뚜껑의 높이보다 훨씬 높은 10000미터의 상공을 날아 더 큰 세상으로 스스로를 이끌었고, 푸른나무재단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을 통해 개인적 차원으로도, 사회적 차원으로도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낸 영향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한걸음 더 성장하였습니다.

뉴욕에서 저는 정말 많은 인연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유엔 본회의장에 들어가본 날, 옆자리에 코를 골며 주무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웃고 넘겼던 상황이었죠. 그 이후, 유엔 내에서 그분을 마주치며 종종 인사를 나누다가 푸른나무재단 사이드이벤트에도 참석하신 것을 보고 감사한 마음에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이드이벤트를 마친 후 본회의장에 다시 참석했을 때, 그분은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분께 “Someday when I get older, I really want to be here just like you.”라고 말씀드렸더니, “I’m sure you WILL be here. I started like you, and now, I’m here! It’s definitely not easy, but remember. I’ll always be here for you.”라고 미소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낯선이에게서는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분의 진심 섞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몽클합니다. 뉴욕에서 돌아온 이후의 저는 삶은 보다 더 스스로를, 도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분처럼 누군가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푸른나무재단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이 제게 단순히 유엔에서의 사이드이벤트, 그리고 국제무대 커리어 정도의 경험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이드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힘쓰는 동안,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동안, 대표단인 저의 삶에도, 마음에도, 가치관에도 이 활동은 절대 꺼지지 않을 하나의 따뜻한 불씨로 남아 영원히 제 마음을 안아주고 치료해줄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푸른나무재단의 UN 청소년 대표단을 사랑한 만큼, UN 청소년 대표단이 저에게 준 사랑만큼, 우리 사회에 푸른나무재단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은, 만들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은 그 끝이 없음을 알기에, 앞으로의 푸른나무재단과 UN 청소년 대표단의 모든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푸른나무재단 파이팅!!

“2년 연속 참가할 만큼 UN에서 세상을 향한 꿈을 꿀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이승은 / 청심국제고등학교 2



<청소년 대표 연사로서 발언하는 이승은>

처음 2023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에 지원을 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 연도에도 또 지원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는 그만큼 푸른나무재단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이 저에게 준 추억과 가르침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경험을 지속해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2022년 UN 청소년 대표단으로 활동하며 쌓았던 인연을 이번 2023 UN 청소년 대표단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세계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직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설레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활동과 진행방식과 준비과정에 있어 다른 점도 많았지만 그래서인지 더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유엔에 간다는 사실과 실제 방문했을 때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모두 함께 작성했던 과제, 주고받았던 피드백, 수백번의 수정과정을 거쳐 꾸준히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만큼 우리 모두의 힘이 모아져 의미있는 대본과 피피티가 완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연사로 선발이 되어 유엔 현장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지털 웰빙 구축방안,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교육 보급"에 대한 연설을 하는 것은 매우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나무재단이 주최하는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하고, 성명문을 제출하여 국제사회에서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부간 기관이 다루지 않는 사회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CSocD)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10박 12일 동안의 일정 중에서는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는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본회의와 여러 사이드이벤트, 포럼 등을 듣고 교류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푸른나무재단 측에서는 다양한 국제 교류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여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덕분에 주말에도 알차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뉴욕 현장에서 함께 밤을 지새고 사이드이벤트를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밌는 문화활동들을 한 슬아, 빈이, 경훈이, 서아 그리고 이지상 팀장님, 김승연 연구원님, 이종익 사무총장님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을 2년 연속 참여하고 청소년 연사로 직접 참여하고 경험한 입장으로서는, 푸른나무재단의 UN 청소년 대표단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꼭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추천하고 싶고, 다음에 기회가 또 된다면 푸른나무재단과의 인연을 이어가 대학생이 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여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과 사업 개발에 노력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폭력 유형인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발언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저희의 가치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승은, 청심국제고등학교 1)



"모든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꿈"

UN청소년대표단으로 회의를 준비하고 대본을 작성해 UN사이드이벤트를 준비하며 사이버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와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참여과정이 굉장히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홍서윤, 청심국제고등학교 1)



"모든 참여 과정이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대표단으로 팀원들과 함께 UN성명문을 작성하고 연구원님들과 소통하며 공동작업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이버폭력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다영, 동덕여자대학교 1)



"NGO와 여러 국제기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

UN청소년 대표단 활동을 통해 사이버폭력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UN본회의에 참석 이후 여러 NGO와 UN 회원국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그들과 더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아, 서울외국인학교 11)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할 때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사이버 폭력의 해법을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홍보 영상 등 청소년이 다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재현, 이대부속고등학교 1)



2023년도 제61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 활동

사이드이벤트 개최	서면성명문 등재	구두성명문 연설	활동 리뷰 블로그
			

제61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푸른나무재단 서면성명문 공식 등재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18 November 2022
 English only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Sixty-first Session
 6-15 February 2023
 Follow-up to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and the twenty-fourth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Priority Theme: Creating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as a way of overcoming inequalities to accelerate the recovery from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tatement submitted by The Blue Tree Foundation and the European Youth Information and Counselling Agency (ERYIC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Secretary-General has received the following statement, which is being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36 and 37 of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96/31.

E/CN.5/2022/NGO/26
Statement
Resolutions to bridge digital gap and digital dysfunction to create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The Blue Tree Foundation and the European Youth Information and Counselling Agency propose the need for a system, international cooperation, education dissemination, and digital company obligations for youths suffering from digital dysfunction and digital gap that disrupt productive employment and the creation of decent work.

Digital technology, which has been developing at the fastest pace in human history during the 21st century, is the greatest opportunity and biggest threat to modern-day people. Over the past few years, the dependence and commercia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have increased even more rapid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United Nations warned of a significant increase in inflammatory hate speech and cybercrime as Internet usage increased during the pandemic, and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data of the increase in Internet users from 4.1 billion (54% of the world's population) in 2019 to 4.9 billion (63%) proves how much the Internet environment has spread in a short period.

As a result, both emerging and advanced countries are facing the dysfunction and division of digital technology that they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in particular, emerging countries are accelerating the vicious cycle of unemployment and poverty due to the serious digital divide. According to the Pew Research Center in the United States, advanced countries had higher smartphone ownership rates than emerging countries and were more likely to be owned by younger and more educated people. In other words, in the digital era, youth living in countries that lack digital technology, which directly affects economic growth, limit access to quality education as well. This situation causes mankind to lose existing jobs and allows only the higher-educated people using more advanced digital technology to survive, worsening the polarization.

Meanwhile, advanced countries are also frequently experiencing dysfunctions such as cyberbullying due to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technology. According to the 2022 National Research on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conducted by the Blue Tree Foundation, the victim rate of cyberbullying among Korean students has tripled from 5.3% in 2019 to 16.3% in 2020, and nearly doubled to 31.6% in 2021. The trauma and wounds caused by cyberbullying experienced at a young age are not quickly dissolved and linger as digital footprints, negatively affecting youth employment and economic activities. Those affected by cyberbullying are not able to follow the school curriculum due to mental trauma or necessary procedures such as counseling, treatment, and legal resolution, or suffer from depression, resulting in a loss of motivation and confidence for economic activities.


In addition, these problems have spread to general households, creating an unstable youth group. Over 1,800 young people from 46 countries participated in a brief survey on emotional wellbeing conducted by the European Youth Information and Counselling Agency in January 2021. The answers showed that young people, especially vulnerable youth, have experienced some of the most severe consequences of isolation, decreased education and job opportunities, and reduced leisure activities. The same study included interviews with 150 youth information and counseling professionals who reported an unprecedented increase in mental health issues and distress among young people reaching their services.

Meanwhile, several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the digital dysfunction phenomenon that occurred in advanced countries is appearing similarly in emerging countries, as digital civilization has gradually developed. In particular, India, which has the highest economic growth rate in the 21st century,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rate of cyberbullying in the world, and is increasing every year. Similarly, more than half of South Africa's parents also say their children are victims of cyberbullying. However, these emerging countries with economic and educational level gaps


* The present statement is issued without formal editing.
 21-16926(E)181121
 2116926



국제사회복지대학연합회(IASSW), 푸른나무재단 사이드이벤트 뉴스레터 기사보도



The resolution acknowledges some of the data on the aging population, current challenges (poverty, old age, lack of social connection), and new challenges (climate change, impacts of digital transformation). He also provided input on how Costa Rica has been an advocate for these issues for many years as well as how it has implemented many of its policies based on MIPPA. The former Head of the DESA Programme on Ageing provided some remarks on MIPPA and how the implementation to date is not sufficient. He stated that there must be an international consensus to make sure that MIPPA is well-implemented. He also pointed out that some of the current obstacles to full implementation are due to insufficient structures,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disinterest from the younger generation. The event continued with input from Turkey's Director General of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She stated that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MIPPA and that many older individuals do not know that MIPPA can be used as an advocacy tool. She also pointed out that national reports on aging might not always reflect the actual disparities in the population. She concluded her discussion with a call to action for member states to pursue a social justice approach. The event concluded with questions and discuss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MIPPA, please visit: <https://www.un.org/development/desa/ageing/madrid-plan-of-action-and-its-implementation.html>




Achieving Digital Well-being and Addressing Digital Inequality for Sustainable Employment and Decent Work of Youth

The side event was jointly hosted by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The Blue Tree Foundation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and The European Youth Information and Counselling Agency (ERYICA). The event focused on the aspects of digital well-being that may affect the fu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ll, with a special focus on youth, and the different ways to recover from COVID-19 in the post-pandemic era through the appropriate use of digital technology. The meeting started with opening remarks from Jong Il Lee, Secretary General of The Blue Tree Foundation. The event was mostly led by young panelists. The first speaker was Erica Reina, Secretary Director of ERYICA. She started by addressing the nature of information and how it has changed over the past few years, specifically how information reliability has become harder to obtain. She provided information about how Covid-19 has impacted youth mental health and the importance of providing proper youth services. She also emphasized the different global views of mental health services and how countries treat mental health services globally. The co-founder and CEO of the Logout Organization, Boris Veler, provided some remarks about employment and quality job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He provided positive and negative insights into digital technology. The event continued with remarks from UN Youth Delegates of the Blue Tree Foundation. The event provided good input on the intersectionality between well-being and technology. The event also discussed recommendations to address digital inequalities as well as how to achieve digital well-being post-pandemic. The event concluded with questions and discussion.

Civil Society Forum 2023 Emphasizes People-Centered and Rights Based Approaches

Each year, a forum organiz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s held as part of the Commission. The Forum was hosted jointly by UNDESA, the NGO Committee for Social Development, and the Friedrich-Ebert-Stiftung (FES) Foundation. The Vice Chair of the NGO Committee on Social Development, Mary Ann Dantasson, welcomed all participants and then emphasized how CSocD61 highlighted the need for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in the reduction of poverty and the achievement of the Agenda 2030 as well as emphasizing a human rights perspective and social dialogue. The event continued with remarks from the Chair of the NGO Committee for Social Development, the Bureau of CSocD Chair, the Under-Secretary General DESA, the director of the Division of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at the UN/ DES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the Director of the Friedrich Ebert Foundation (FES), and Executive Assistant of the NGO Committee for Social Development. The first thematic session, "Working Toward Concrete Solutions for Marginalized Young People Facing Unemployment," addressed systemic discrimination and how to create work opportunities. It also presented how organizations have been promoting concrete innovative programs involving youth participation, education, and the well-being of youth drawing on their experiences. The thematic theme for the second session was "Rethinking the Dominant Economic Paradigm- Ensuring Social Protections and Just Transitions For the Changing World of Work". It focused on how to address employment protection through people-centered policies and rethinking global economic arrangements. The purpose of the session was to think through dominant economic paradigms and how to mediate the challenges caused by these paradigms. The forum concluded with summary remarks from Dr. Hy Ofon, National Coordinator of the Worldwide Network Nigeria, and closing remarks from Lara Hicks, Executive Assistant of the NGO Committee on Social Development and Chair of the Civil Society Forum.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ivil Society Forum, please visit: <https://ngosocdev.org/what-we-decommission-for-social-development/civil-society-forum-2023/>
Civil Society Declaration 2023: <https://www.un.org/development/desa/ageing/madrid-plan-of-action-and-its-implementation.html>
<https://www.un.org/development/desa/ageing/madrid-plan-of-action-and-its-implementation.html>

IASSW UN Team meets in New York
 Five of IASSW's representatives to the UN in New York were able to meet in person on February 8 during the week of the Commission on Social Development. After 3 years of

2022년도 제60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 활동

사이드이벤트 개최	서면성명문 등재	구두성명문 연설	활동 리뷰 블로그
			

제60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푸른나무재단 서면성명문 공식 등재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12 November 2021
 English only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Sixtieth session
 7-16 February 2022
 Follow-up to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and the twenty-fourth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Priority Theme: Inclusive and resilient recovery from COVID-19 for sustainable livelihoods, well-being, and dignity for all—eradicating poverty and hunger in all its forms and dimensions to achieve the 2030 Agenda.

Statement submitted by Concepts of Truth, Inc. and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Secretary-General has received the following statement, which is being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36 and 37 of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96/31.

* The present statement is issued without formal editing.

Please recycle ♻️

E/CN.5/2022/NGO...

Statement

Ending poverty in all its forms is, as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acknowledges, "the greatest global challenge." According to the UN's report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poverty is multidimensional; it not only includes hunger and malnutrition but also limited access to education, soci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s well as the lack of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Material poverty thus coexists with, and can also result from, vulnerability and isolation, and it is these forms of emotional poverty which can directly result from violence in its various forms.

Violence has increased dramatically due to COVID-19, and as new variants of violence emerge,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online sexual violence and cyberbullying, women and youth become more and more at risk. Violence not only impacts women and youth mentally and physically but also affects their human dignity and well-being and impedes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SDG 16). We thus urge the UN and all member states to work together to reduce violence and ensure that vulnerable individuals can flourish in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According to Chamorro-Premuzic, T. and Wittenberg-Cox, A., during the pandemic, sexual violence skyrocketed, resulting in a multitude of unwanted pregnancies and abortions. Natalia Kanem, executive director of the UN Population Fund, predicted on August 1, 2020 in The Lancet that there could be up to seven million additional unintended pregnancies worldwide because of the devastating effects of COVID-19 on women and girls, and of those pregnancies, an estimated sixty-one percent will likely end in abortion. Such devastating effects of sexual violence and emotional poverty in turn are found to increase women's vulnerability to sexual exploitation.

While for some women, abortion may provide short term relief from the physical and emotional stress of carrying an unexpected or unwanted child to term, abortion has significant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consequences which often result in the vulnerability, isolation and emotional suffering that comprise emotional poverty and loss of dignity. Numerous global studies have confirmed the negative short and long-term health impact of abortion, including numerous psychiatric complications such as severe depression and suicide. An extensive study published by The DeVeber Institute for Bioethics and Social Research in 2015, "Complications: Abortion's Impact on Women," found that women who aborted their first pregnancy were 65 percent more likely to fall into clinical depression than those who had the child, while post-abortive women were at much higher risk for suicide than women who completed their pregnancies.

These complex expressions of emotional poverty following the pandemic require a multidimensional solution that includes health care and education (SDG's 3 and 4). Teaching individuals to explore and evaluate options is a necessary tool for decision making and evaluating risks. Concepts of Truth, Inc., a U.S. faith-based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 thus aims to educate the whole person to make healthy life choices that empower future generations through its adult counselor training curriculum, Concepts of Recovery: The Journey, and through its student sexual health curriculum, Concepts of Sexual Health, Sex & You. The Journey curriculum trains adult counselors to direct individuals of all faiths and backgrounds through the grieving process as they learn about forgiveness, peace and comfort and find spiritual and emotional relief from the sorrow and possible trauma following abortion and miscarriage. For students, the Concepts of Sexual Health, Sex & You curriculum relies on medical facts and research to transmit the truth about core values, self-worth, dignity, responsibility, and the science of sex to empower youth and families to make informed life choices in relationships which affect the whole person's present and future well-being.

After the pandemic, this emotional poverty has been transferred to an unspecified number of youths online, appearing as cyberbullying. Cyberbullying has increased in various types such as cyber harassment, exclusion, stalking and sexting, but current domestic and foreign laws do

한국경제 학생기자, 2022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참가후기 기사보도

[생글기자 코너] 유엔 회의에서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알려

입력 2022-03-07 10:00 수정 2022-03-09 10:00 지면 S21

지난달 9일 제60차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에선 '도 하나의 팬데믹, 사이버 폭력이 유발한 정서적 빈곤'을 주제로 행사가 열렸다. 청소년이 직접 사이버 폭력의 해법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였다.

지난달 9일 제60차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에선 '도 하나의 팬데믹, 사이버 폭력이 유발한 정서적 빈곤'을 주제로 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사이버 폭력으로 청소년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에 대한 해법과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 푸른나무재단이 세계청소년연맹 아시아태평양지부와 함께 주최했다.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필자는 지난 1월 12일 유엔 청소년 대표단에 입단한 것을 시작으로 한 달 가까운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행사 당일엔 패널리스트 발언할 기회도 얻었다. 이 기회를 활용해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영상으로만 하지 말고 학생들이 직접 학교 폭력 예방 연극을 한다든지 보다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두 차례 회의를 거치고, 대본을 세 차례나 수정하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해 긴장됐지만 그만큼 뿌듯함도 느꼈다.



어른들만이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사이버 폭력의 해법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였다. 무엇보다 한국 청소년을 대표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과 예방책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비록 75분간의 짧은 행사였지만 이런 노력이 합쳐져 사이버 폭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2021년도 제59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 활동

사이드이벤트 개최	서면성명문 등재	구두성명문 연설	활동 리뷰 블로그
			

제59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푸른나무재단 서면성명문 공식 등재

United Nations E/CN.5/2021/NGO/..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23 October 2020
English only

E/CN.5/2021/NGO/..

Statement

In term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unched by the United Nations, the moment has come that the actual procedur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eradicate and prevent cyber violence so as to pursue continuous happiness and peace for youths all around the world.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Fifty-ninth session
February 2021
Follow-up to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and the twenty-fourth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priority Theme: Society just transition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ole of digital technologies 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of all.

Statement submitted by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FPYV),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Secretary-General has received the following statement, which is being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36 and 37 of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96/31.

Cyber violence around the world has been on the rise steadily, while it is associated with on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example, Quality Education(SDG4), Gender Equality(SDG5),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SDG16), and Partnerships for the Goals(SDG17), all of which are the main focus of the modern society.

It is needless to say we already take advantage of the advance of digital technology in numerous ways. There are more technologies that are utilized in social welfare, which enables the suffered ones to ease the accessibility to the technologies for them to be able to get universal benefits.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underlying problems to be dealt with. For instance, it has been noticed that digital technologies have caused side effects on youths who are vulnerable to every type of violence.

In short, we define this as 'Cyber violence.' 'Cyber violence' is a crime that the use of digital-communication tools makes another person feel intimidated physically or mentally by repetitively doing it on purpose. The types of cyber violence are as follows: Cyber verbal violence, Defamation, Stalking, Sexual violence, Bullying, and information leakage and these frequently occur.

The reasons why youths are vulnerable to cyber violence are as follows. Firstly, we do not teach or educate them on how to use this technology in the right ways whereas technology is evolving faster than ever before. There is a need for a new approach to making them be able to utilize digital technology to foster digital citizenship rather than just considering it as a problem itself.

Secondly, unexpected problems due to rapid changes caused by COVID-19 are directly passed onto youths. As of 2020, youths have been more exposed to cyber violence as online learning goes viral during the pandemic. Although there are many press reports saying, online learning contributes to reducing school violence, in fact, school violence changed into the form of cyber violence. Unfortunately, many parents are ignorant of their children who are leading or suffering from cyber violence.

Lastly, there is a limit to cope with this new violence through previous standards or laws related to previous school violence which makes this issue extremely hard to deal with. Also, it has been turned out that government regulation itself cannot successfully prevent ever-changing digital technology from having effects on someone in a negative manner.

Therefore,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urges everyone to realize the seriousness of this issue, and we also suggest a number of solutions to settle the problems.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Blue Tree Foundation) is a youth organization that has bee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issues for 25 years. It is the first found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alerts how severe school violence can be to society and it was founded on the basis of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solving the related issues. In recent years, it takes the initiative in eliminating cyberbullying issues all around the world.

19-20517 (E) 291119
1920517



2/4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 UNSDN, 푸른나무재단 사이드이벤트 기사보도

Protecting and Advancing Health and Dignity for Youth & Families

Posted on May 10, 2021 | by [UNSDN](#) | 0

Youth panelists from Concepts of Truth, NGO and [the Blue Tree Foundation](#) collaborated to discuss the benefits and harms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areas of sexual and mental health, education and maternal healthcare. Each panelist presented videos describing the work of their organization. Concepts of Truth provides sexual and mental health counseling, counselor training, reproductive loss recovery and sexual health education programs and resources along with an international 24/7 crisis intervention helpline. [The Blue Tree Foundation](#)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NGO, is the first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South Korea](#) to raise awareness about [prevent, and provide treatment for cyber violence](#).

Concepts of Truth's first youth panelist, Nevaeh Vazquez, introduced the topic of social media, its widespread use and benefits in building up communities but also its harmful effects on mental health. Youth panelists from [the Blue Tree Foundation](#) next addressed different aspects [of cyber violence](#): [Eunkyo Choi](#) discussed how youth violence has evolved in South Korea with advancements in digital technology and how that has affected youth's physical, mental and sexual health. [Blue Tree's](#) next panelist, [Seungmin Lee](#), discussed new trends in cyberbullying in Asia and their financial and mental harms. Finally, [Director of the Blue Tree Foundation, Jisang Lee](#), discussed the harmful effects of digital technology and its impact on cyber violence. Concepts of Truth concluded the program with its last two youth panelists, Rachel McKenna and Rebecca Tavitt. Rachel discussed the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y and its salutary effect on maternal and natal health, and compared the physical and mental harms presented by the rise of virtual abortions. Rebecca explored the availability of sexual and mental health resources available online and suggested that member states should expand access to sexual health resources, particularly resources acknowledging the grief of miscarriage.

Recommendations:

[The Blue Tree Foundation](#) (The Foundation for Prevention Youth Violence), NGO calls on governments, private enterprise, schools and the local communities to combat cyber violence in all its forms, including cyber verbal violence, defamation, stalking, sexual violence, bullying, and information leakage. Concepts of Truth, Inc., NGO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align with the four pillars of the Geneva Consensus Declaration to ensure (1) better health for women, (2) the preservation of human life, (3) the strengthening of family as the foundational unit of society, and (4) the protection of every nation's national sovereignty in global politics.

Concepts of Truth, Inc., NGO had 87 zoom registrations, 59 event attendees, and over 600 views on our FB live page posting of the event. We also were very pleased to see that the post had reached over 700 people.

UN 본회의 및 기관소개

1

2024년도 제62차 본회의

구분	일정
회의주제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SDGs) 이행과 빈곤퇴치라는 중요목표의 달성방안 : 사회정책을 통한 사회 발전과 사회 정의 촉진
회의기간	○ 2024.02.05.(월) ~ 2024.02.14.(수)
회의장소	○ 미국뉴욕 UN본부
회의구성	○ 고위급 패널토론(각국 대사 및 국제기구의 고위급들이 모여 여는 토론) ○ 장관포럼(장관급들이 모여 진행하는 포럼) ○ 일반포럼(각 주제에 맞게 진행되는 UN포럼) ○ 사이드이벤트(승인받은 NGO들만이 개최할 수 있는 부대행사) ○ 시민사회포럼(전세계 NGO들이 모여 진행하는 토론)

○ 참가활동 정보



[제62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주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제62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홈페이지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CSocD)는 정부간 기관이 다루지 않는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2차를 맞는 이번 회의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SDGs) 이행과 빈곤퇴치라는 중요목표의 달성방안 : 사회정책을 통한 사회 발전과 사회 정의 촉진”을 위한 주제로 뉴욕 본부에서 열립니다.

푸른나무재단은 2009년 특별협의지위를 부여 받아 UN 본회의에서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UN 청소년 대표단은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직접 회의 주제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데 참여할 것입니다. UN 청소년 대표단은 회의를 이끄는 사회자, 연설자, 참여자로서 직접 UN 무대를 경험하고 연설할 수 있으며 각 국의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와 토론하고 네트워킹하며 국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UN 청소년 대표단은 본회의에 참여하며 리더십, 자신감, 다양한 시각, 국제 이슈에 대한 관심, 세계시민성을 함양하여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회의기관



UN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UN CSocD)는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다루지 않는 사회적 분야의 모든 문제에 대해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조언하는 UN의 주요기구입니다. 1971년을 시작으로, 사회개발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주제로 채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UN 회원국 정상, 국제기구, 전문가, 그리고 UN 지위를 획득한 국제 NGO가 모여 매년 2월, 뉴욕에 위치한 UN 본부에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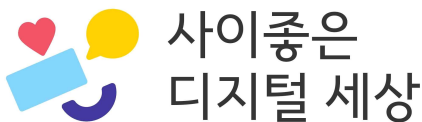
주관기관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학교폭력의 피해로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청소년 NGO입니다. 현재 학교·사이버폭력예방 교육, 상담·지원, 분쟁조정, 실태조사 연구, 캠페인, 미래·진로 지도, 국제사업 등 다양한 청소년폭력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10개의 지부와 15개 직영 및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코끼리는 전 세계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친사회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교육부-경찰청-푸른나무재단-사랑의열매-삼성'이 함께 하는 10년 중장기 사업입니다(2020-2029년). 푸른코끼리 사업은 크게 ▲예방교육 ▲심리상담·치유 ▲예방 문화 확산 ▲학술연구 ▲예방 플랫폼이라는 5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30만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Born Digital 세대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카카오임팩트와 푸른나무재단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학교교육, 교사연수, 효과성 연구, 강사 운영 등 여러 사업을 지원합니다.

제출서류 양식

2024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지원서

1. 인적사항

사 진 (3 x 4) 6개월이내 촬영원본 *AI 보정사진 금지	국문성명	여권상 성명	영문성명	여권상 성명
	생년월일		국 적	
	이 메 일		휴 대 폰	
	여권만료일	만료 6개월 미만 시 사전 준비 필요		
현 주소	실제 거주 주소를 작성			

2. 보호자 정보

휴대폰(부)		휴대폰(모)	
법정대리인	(휴대폰)	(관계)	

3. 학교 및 어학 정보

학교/전공		학년(학기)	졸업자는 "졸업" 휴학자는 "휴학" 표시		
영어능력	공인영어성적	자기평가			
	ex) TOEIC 900	듣기 0~5점	말하기 0~5점	읽기 0~5점	쓰기 0~5점
제2외국어	공인영어성적	자기평가			
	ex) HSK 4급	듣기 0~5점	말하기 0~5점	읽기 0~5점	쓰기 0~5점
자격증	자격증명	등급	발행처	취득일자	
	컴퓨터활용능력	1급	고용노동부	2023.01.01.	
	한국사	1급	국사편찬위원회	2023.01.01.	

4. 활동경력 (활동구분: ①동아리, ②봉사활동, ③학생회, ④아르바이트, ⑤수상, ⑥인턴활동, ⑦기타)

기간	활동 기관명	활동내용 및 역할	활동구분
2023.01.01. ~2023.06.30.			해당번호 기입

5. SNS 활동정보 (보유계정 URL 주소 첨부 및 제작 영상물 있을 시 함께 링크 첨부)

블로그	URL 기입
인스타그램	URL 기입
페이스북	URL 기입
유튜브	URL 기입

2024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자기소개서

1. 대표단에 지원하는 동기와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작성해 주세요. (500자 내외)

2.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관한 지원자의 평소 생각과 관련 경험을 작성해주세요. (500자 내외)

3.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62차 본회의 주제와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를 어떻게 연결하여 어떤 주제로 연설할 수 있을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작성해주세요. (1,000자 내외)

4. 본인의 주요 일정을 모두 작성해 주세요.

2학기 기말고사	2023.11.06.(월) ~ 2023.11.10.(금) / 일주일간
겨울 방학	
봄 방학	
그 외 일정	

5. 서류합격 시 참여할 12월 03일 대면면접에 가능한 시간대를 모두 체크해주세요.

- 09:00 ~ 10:00
 10:00 ~ 11:00
 11:00 ~ 12: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 체크해 주신 일정으로 면접 시간을 배치할 예정이나 원하시는 시간으로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초상권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단 모집 및 선발,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기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집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본인 및 보호자 연락처, 전공 및 학년(학기), 영어 등 ▶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지원서 등에 제공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영상저작물, 관심분야, 자격증, 활동경력, SNS활동 정보, 자기소개 등 정보
보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개인정보와 초상권은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모집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모집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대표단 활동, 차회 UN 청소년 대표단 선발 홍보 등 후속 작업을 위해 활동 종료 후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선발심사를 위하여 필수적 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제62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푸른나무 재단 UN 청소년 대표단 선발심사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한 후 본인이 기재·제출한 선택적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사랑의열매, 삼성글로벌리서치,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월/분기/연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소속, 기타 신청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제공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제공 후 3년 또는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UN 청소년 대표단에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반드시 자필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만19세 미만 지원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반드시 함께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귀하